

23-2, 2023 년 2 월달 밴쿠버 김은중이유진선교사 편지

1. 선교현장에서 전한 말씀 나눔(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때에)

"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눅 21:9-10)

벌써 3 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매달 첫째주에 그 전달 선교 소식을 전하는데 2023 년도 2 월이 지난지 1 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마다 누가복음 강해를 해 가는데 최근에는 21 장에 들어서면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살펴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대부분 초신자들이기에 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강한메시지 보다는 그 문자적 메시지에 숨겨진 영적의미를 오늘날 적용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마지막 날에 일어날 반란과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소문과 전쟁이 끈이지 않는 것을 볼 때 말세의 징조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간들의 근본적인 이기심과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세에는 극도로 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파괴하고서라도 본인들의 욕심을 채기는 죄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종말에 우리는 이땅에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단들처럼 세상을 등지고 모든 것을 중지하고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면서 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삶의 글판왕의 모습이 팽배한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peacemaker 로써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섬김으로 모든 사람들가운데 화평속에 살게 하고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 시기에 모든 포커스를 영혼 구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기, 자기만을 강조하는 개인과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섬겨주고 사랑해 줌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하고 주님의 사랑속에서 모두가 예수님과 화평을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살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2. 2 월 사역을 돌아보며



2월달에는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다만 큰 아쉬움은 2월 말에 갈릴리 교회초청 찬양예배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드리지 못한 점입니다. 밴쿠버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도로를 폐쇄하기 때문에 모임을 이루지 못합니다. 3 주를 잘 준비해서 마지막주에 초청잔치와 더불어 찬양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 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매주 마다 10 여명 성경공부식 예배로 드렸고 매주 금요일 6:45-9:00 탁구 교제와 주일 4-8 시 예배 및 교제를 다 이루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감사한점은 지속적으로 10 여명이 예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주마다 탁구교제가 잘 이루어져 새로운 사람들도 찾아오게 되어 전도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boni 가정이 감사가 됩니다. 처음에 천주교 신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었는데 성당은 거의 나가지 않고 1 년에 큰 행사에만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부부에게 있어서 질문도 많고 집중도 잘합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들이 angelof 입니다. 좀 몸이 불편해서 늘 같이 다닙니다. 아들 나이가 30 에 가까운 나이로 두 부부에 큰 기도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우리 교회의 큰 기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음식 준비도 함께 동참하고 와서 자리도 준비해 줍니다.

매주 성경공부를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점차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초신자이기에 예배의 전통적인 형식을 깨고 잘 말씀을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란인들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에 이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 월달에 매주 금요일 마다 peter 성도와 일대일 공부를 했는데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정비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워낙 바빠서 교회도 잘 나가지 못하는데 말씀공부를 통해 여러 질문을 하고 이해가 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청년 김동수 형제와 일대일을 잡고 있지만 좀처럼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형제는 교회 오픈 할 때부터 계속 자리를 지켜 최근에 한국에 6 개월 다녀온 공백이 있었지만 다시 와서 모임에 잘 나옵니다. 건설업계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캠퍼스가 산에 있어서 눈이 오면 가지 못합니다. 지난 2 월달에는 2 번 참석해서 adisu 형제와 zerofile 형제, amin 형제를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봄학기 중반에 탁구 토너먼트를 개최해서 다시 멤버들을 만나고 그룹성경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 해 주세요

교회 재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교회 심방과 시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캠퍼스 사역에 대해 다민족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후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마다 예배와 교제 시간을 위해 레크레이션 센터를 임대해서 사용하기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도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연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후원자들께서도 이를 위해 좋은 정보 있으면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아내가 열심히 child care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습기간이라 집 주변의 어린이집에서 교사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준이는 ubc 대학으로 교환하기 위해 열심히 학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대학원과 간호사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요한이는 졸업해서 part time 으로 일했던 곳에서 좀더 전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 월달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체가 찾아오도록, 계속되는 예배속에서 말씀속에 강건해 지는 성도들이 되도록 , 일대일 공부속에서 더욱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3 월달 기도제목

- 1) 캠퍼스에 계속해서 새로운 청년들을 잘 만나고 성경공부로 이어지도록
- 2) adisu amin, zerofile, frank 형제와 다시 그룹공부가 시작되도록
- 3) 주안에 행복한 교회의 가족중에 할아버지(ebi, mario, marian, king,zary, bob, nadal,moo) 들이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시도록
- 4) 매주 금요일 마다 탁구 교제가 활성화 되어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5) 밴쿠버와 한국에 후원할 교회를 계속하여 찾고 잘 연결될수 있도록

6) 저희 가정이 늘 성령충만하여 주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포용하고 꿈을 붙잡을 수 있도록